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8, Vol. 22, No. 4, 1～14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 정보량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 우 영+
한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도덕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행동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정보를 통합하는 부정성 편파가 나타났고, 지적 능력 차원에서는 긍정적 정보가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긍정성 편파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정성 및 긍정성 편파가 집단 인상형성에 미치는 효과는 집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부정성 및 긍정성 편파가 선거운동과 같은 현실문제에 시사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제어 : 부정성 편파, 긍정성 편파,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 정보량

사람, 집단, 또는 사건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판단 대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연스럽고 타당한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구성원 중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연쇄살인범이 공존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최종 인상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아니면 중립적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을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정보통합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대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 즉,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여 최종 인상을 형성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인상형성에서 정보통합의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중의 하나가 바로 Anderson(1974, 1981)의 평균모형이다. 이 모형은 자극인물의 최종인상은 개별자극이 내포하는 평가치의 수학적인 평균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32-H00019).
+ 교신저자 : 전우영,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3) 248-1727,
E-mail : wooyoung@hallym.ac.kr

www.kci.go.kr

모형의 가정과는 달리, 인상 형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람들이 대상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자극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의 단순평균에 의존하기보다는 특정한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Anderson, 1965, 1968, 1974; Birnbaum, 1972, 1973, 1974; Carlston, 1980a, 1980b; Fiske, 1980; Hamilton & Huffman, 1971, Van der Plight & Eiser, 1980). 보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평가대상의 긍정적인 특성이나 행동보다는 부정적인 특질 또는 행동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부정성 편파(negativity bias)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부정성 편파가 발생하는 이유를 Fiske(1980)는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희귀한 소수정보라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즉, 부정적인 행동은 소수정보이기 때문에 독특한 것으로 지각되고, 그 결과 정보처리 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를 받게 된다고 한다. 결국, 부정적인 행동이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Birnbaum(1972)과 Wyer(1973, 1974)는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 단서로 사용하기에 덜 애매하고 불확실성의 정도가 낮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상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정성 편파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은 부정성 편파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편파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기존의 관점들은 지각자가 긍정적인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하는 긍정성 편파(positivity bias)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kowronski & Carlston, 1987, 1989). 정보통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이론적인 가정은 Skowronski와 Carlston(1987)의 단서-진단성 접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단서-진단성 접근

Skowronski와 Carlston(1987, 1989)에 의하면 사람들은 행위자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질 범주에 할당하기 위해서 단서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때 단서가 행위자가 다른 범주와는 구별되는 특정한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할수록 그 단서의 진단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단서가 어떤 사람이 하나의 범주에 속할 지각된 확률은 높이고 그 사람이 다른 범주에 속할 확률은 낮춘다면, 이 단서의 진단성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가 여러 단서에 의해서 묘사된 경우에 범주화는 가장 확실한 범주화를 유도하는 단서, 즉 보다 더 진단적인 단서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Skowronski와 Carlston(1987, 1989)에 따르면, 진단적인 단서는 판단과정 동안 기억으로부터 인출되는 원형적인 행동과 특질의 연결망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서와 연결된 특질 범주를 지각자에게 보다 특출하고 강력하게 만든다고 한다.

Reeder(1985)에 의하면 부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행동보다 더 진단적인 것으로 지각된다고 한다. 이는 부정적인 행동은 부정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지각되지만,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과 부정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 모두의 특징이라고 지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털기'와 같은 부정적 행동은 주로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지각된다. 하지만 '강도를 격투끝에 잡기'와 같은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보다 자극인물을 범주화하는데 더 진단적이라고 가정한다. 결국 부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보다 더 진단적이기 때문에 판단 시에 부정적인 단서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것이 부정성 편파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단서-진단성 접근은 항상 부정성 편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단서가 부정적 단서에 비해서 더 진단적이라고 지각되는 경우에는 긍정성 편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사람들만 하고, 부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들 모두가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행동이 더 진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상판단 시 긍정적인 단서에 더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긍정성 편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성 편파는 수행이나 능력과 같이 긍정적인 행동이 더 진단적인 단서로 작용하는 범주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www.kci.go.kr

(Skowronski & Carlston, 1987, 1989).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은 유능한 산악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뒷산을 오르는 것은 유능한 산악인도 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과 관련된 범주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서가 더 진단적인 것이다.

도덕성 범주와 능력범주

Skowronski와 Carlston(1987, 1989)에 의하면 단서의 진단성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정보의 내용이 도덕성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면 능력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진단적인 단서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 범주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보가 진단적이지만, 능력범주의 경우에는 긍정적 정보가 더 진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성범주에서는 부정성 편파가 일어나고 능력범주에서는 긍정성 편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도덕성과 능력범주의 주요한 차이는 두 범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각되는 외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도덕성 범주에서 긍정적인 행동(예,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것을 알고 돌려주었다)은 동조나 타인에게 호감을 사기위한 것 등의 다른 요인에 귀인시키기 쉽다고 한다. 반면에 도덕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예, 학부형이 촌지를 주지 않으면 학생들을 괴롭혔다)은 보다 분명히 도덕성 차원에 귀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성 범주에서는 부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보다 더 진단적인 것으로 지각되고, 그 결과 부정성 편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능력범주에서는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행동(예, 대학입시에 떨어졌다)은 피로나 동기의 결여와 같은 다른 요인에 귀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성공 같은 긍정적인 행동(예,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다)은 보다 더 분명히 능력에 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Heider, 1958). 따라서 능력범주에서는 긍정적인 수행이 보다 더 진단적으로 지각되고, 그 결과 긍정성 편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서-진단성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Skowronski와 Carlston(1987)의 실험에서는 각각의 실험참여자들에게 한 쪽 당 한 명의 자극인물이 행한 두 가지 행동에 대해 묘사된 25쪽의 자극책자를 제시했다. 자극인물들이 행한 두 가지 행동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차원의 5가지 수준의 행동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성된 자극을 실험참여자에게 제시한 후 자극인물 25명에 대해 각각 평가를 하도록 했다. 결과를 보면, 도덕성 차원에서 행동 1이 극단적으로 긍정적이면 행동 2에 따른 최종인상의 변산이 매우 컸지만, 행동 1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면 행동 2에 따른 최종인상의 변산이 매우 작았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최종인상은 부정적이었다. 이는 도덕성 차원에서는 행동 1에 의해 형성된 첫인상이 행동 2에 의해서 수정될 가능성은 행동 1이 긍정적이었을 때보다 부정적이었을 때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덕성 차원에서는 부정적 행동 1에 의해 형성된 부정적인 인상은 행동 2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행동이 인상판단의 주 단서로 작용했고 그 결과 부정성 편파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능력 차원에서는 행동 1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면 행동 2에 따른 최종인상의 변산이 매우 컸지만, 행동 1이 극단적으로 긍정적이면 행동 2에 따른 최종인상의 변산이 매우 작았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최종인상은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능력 차원에서는 행동 1에 의해 형성된 첫인상이 부정적이었을 때보다 긍정적이었을 때 행동 2에 의해서 첫인상이 수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능력 차원에서는 긍정적 행동 1에 의해 형성된 긍정적인 인상은 행동 2의 내용에 따라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능력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이 인상판단의 주 단서로 작용했고 그 결과 긍정성 편파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는, 단서-진단성 접근의 가정과 일치하게, 도덕성 차원의 경우 부정성 편파가 일어나고 능력 차원에서는 긍정성 편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주된 관심은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통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집단 차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 차원에서 나타나는 부정성 편파와 능력 차원에서 나타나는 긍정성 편파가 집단에 대한 인상

www.kci.go.kr

형성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관심사는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어진 정보의 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은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변산성에 대한 지각에서의 차이이다 (McConnell, Sherman, & Hamilton, 1997). 일반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행동들보다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들 간의 변산성의 정도가 더 클 것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인상을 형성했을 때 집단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보다 더 통일된 인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만약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이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보다 덜 통합된 것으로 지각된다면, 집단에 대한 통합된 인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즉, 개인에 대해서는 단 몇 개의 정보만을 토대로 주관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인상을 형성할 수 있지만, 집단에 대해 동일한 정도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이 도덕성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집단 내의 한 두 사람의 행동만 가지고는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서 긍정성 편파나 부정성 편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여자들에게 두 개 집단의 구성원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집단 A와 집단 B로 명명된 두 집단은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을 한 동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집단 A는 극단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고 집단 B는 비극단적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즉, 집단 A의 구성원들의 행동은 극단적으로 긍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반면, 집단 B의 구성원들의 행동은 약간 긍정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이었다. 집단 구성원들의 행동은 도덕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거나 지적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덕성 조건에서는, 집단 A는 도덕성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반면, 집단 B는 도덕적으로 약간 긍정적이거나 또는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지적능력 조건에서는, 집단 A는 지적능력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고, 집단 B는 지적능력 차원에서 약간 긍정적이거나 또는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실험참여자들에게 제시된 두 개 집단에 대한 정보의 양에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았던 조건에서는 극단적 집단의 긍정적인 행동 8개와 부정적인 행동 8개 그리고 비극단적 집단의 약간 긍정적인 행동 8개와 약간 부정적인 행동 8개의 총 32개의 정보가 제시되었다. 반면, 집단에 대한 정보의 양이 적었던 조건에서는 극단적인 집단의 긍정적인 행동 2개와 부정적인 행동 2개 그리고 비극단적 집단의 긍정적인 행동 2개와 부정적인 행동 2개의 총 8개의 정보가 제시되었다.

만약 부정적인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부정성 편파가 나타난다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이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정보가 판단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긍정성 편파가 나타난다면,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이 약간 긍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인상형성에 대한 Skowronski와 Carlston(1987)의 연구에서처럼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서도 도덕성 차원에서는 부정성 편파가 나타나고 지적능력 차원에서는 긍정성 편파가 나타난다면, 도덕성 차원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비극단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정성 편파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지적능력 차원에서는 극단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비극단적인 성원으로 구성된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긍정성 편파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집단에 대한 통합된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는 집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www.kci.go.kr

방 법

연구 대상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80명(남 54, 여 26)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2(정보량 : 다, 소)×2(행동차원 : 도덕성, 지적능력)×2(집단 극단성 : 극단적 집단, 비극단적 집단)로 구성되는 조건에 무선 할당됐다. 이때 정보량과 행동차원은 피험자간 변인으로, 집단 극단성은 피험자내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자극으로 사용된 도덕성 차원의 행동과 이에 대한 평가의 평균

행 동	평가 평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평균 = 2.27)	
술을 먹고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2.00
학부형이 촌지를 주지 않으면 학생들을 괴롭혔다	2.10
일부러 자동차에 몸을 부딪쳐서 보상금을 받아냈다	2.15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털었다*	2.25
깡패를 동원해 철거민들을 폭행했다	2.35
노인을 죽이고 시체를 야산에 가져다 버렸다*	2.35
백화점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잡혔다	2.45
뇌물을 받고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2.50
약간 부정적인 행동(평균 = 3.53)	
야영장에서 밤중에 라디오를 크게 틀었다	3.10
극장 매표구에서 차례를 안 지키고 새치기를 했다*	3.15
아주머니가 상자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못들은 척했다	3.25
자기가 아는 길을 묻는 사람에게 모른다고 했다	3.50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못살게 굴었다	3.55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에게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3.75
집에 친척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늦게 들어갔다*	3.95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혼자 영화를 봤다	4.00
약간 긍정적인 행동(평균 = 6.46)	
복잡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했다*	6.30
엘리베이터에서 어른이 먼저 내리시도록 양보했다	6.30
역 앞을 지나다 헌혈차에서 헌혈을 했다	6.30
길을 잃은 애완견을 주인에게 찾아 주었다	6.50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것을 알고 돌려주었다	6.55
길에서 술 취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었다	6.55
산에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휴지통에 버렸다*	6.60
허리가 아픈 어머님을 안마해 드렸다	6.60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평균 = 7.73)	
강도를 격투 끝에 잡았다	7.45
사후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7.45
길에서 주운 천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줬다*	7.55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불평 없이 잘 보살폈다	7.70
매주 장애인들을 목욕시켜 주는 일을 했다	7.75
고아를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웠다*	7.90
평생 모은 돈을 사회에 기증했다	7.90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며 살았다	8.15

주. *는 소수집단 조건에서 사용되었던 자극문항

www.kci.go.kr

표 2. 자극으로 사용된 지적능력 차원의 행동과 이에 대한 평가의 평균

행 동	평가 평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평균 = 2.27)	
고등학교에 와서도 아는 영어단어가 다섯 개 정도이다	2.00
나이가 서른이 되었는데도 한자를 하나도 몰랐다*	2.15
초등학교 성적은 모두 수우미양가 중에서 '가'이다	2.20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	2.25
중간고사에서 전교 꼴지를 했다	2.30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하지 못했다	2.40
낙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2.40
아라비아 숫자를 알지 못해서 전화를 걸지 못했다	2.45
약간 부정적인 행동(평균 = 3.53)	
과외까지 받는데도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았다*	3.10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알려줘도 곧 잊어버렸다	3.20
부임한지 오래 되었는데도 업무에 적응을 못했다	3.25
고사성어를 맥락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	3.50
사용법을 몰라서 가전제품을 방치했다	3.60
공무원 임용 시험에 세 번째 떨어졌다	3.70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졸았다	3.90
신문에 실린 퍼즐을 절반도 못 풀고 그만 두었다*	4.00
약간 긍정적인 행동(평균 = 6.46)	
친구 졸업 논문의 문제점을 발견해 주었다	6.30
동일한 수업에서 친구들보다 나은 학점을 받았다*	6.40
선생님이 맡긴 일을 혼자서 빈틈없이 처리했다	6.40
교내 신문에 영화평을 실어 호평 받았다	6.45
화학 공식을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외웠다	6.45
한 번 들은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6.50
약관의 나이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6.55
어려운 문제의 해답을 쉽게 찾았다	6.65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평균 = 7.73)	
한국에서 살았지만 영어를 미국인처럼 잘했다	7.45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나이로 박사학위를 땄다*	7.50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다	7.55
컴퓨터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했다	7.70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일등을 했다*	7.95
세계 백 명의 석학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8.15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 합격했다	7.95
대학교 삼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7.60

주. *는 소수집단 조건에서 사용되었던 자극문항

자극재료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 50명으로부터 지적능력 차원과 도덕성 차원의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 약간 긍정적인 행동,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생각나는데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얻게 된 행동기술문과 Skowronski와 Carlston(1987)의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기술문을 합하여 총 517개의 행동기술문이 만들어졌다. 이를 20명의 대학원생에게 어떤 사람이 각각의 행동을 했다면 이러한 행동을 기초로 그 사람의 도덕성과 지적능력의 정도를 얼마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9점 척도(1=매우 어렵다, 9=매우 쉽다) 상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행

www.kci.go.kr

동들이 도덕성과 지적능력의 개별 차원에서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9점 척도 (1=매우 부정적이다, 9=매우 긍정적이다) 상에 답하도록 하였다. 517개의 행동기술문에 대한 대학원생의 응답을 토대로 지적능력 차원의 32개 행동기술문과 도덕성 차원의 32개 행동기술문을 본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각 차원별 행동기술문과 이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의 평균을 표 1과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지적능력 차원에 선택된 문항들은 조사대상자들이 이 문항들을 토대로 행위자의 도덕성(M=1.60, SD=.43) 보다는 지적능력(M=7.26, SD=.90)을 보다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한 행동들이었다, $F(1, 39)=1055.52$, $p<.001$. 마찬가지로, 도덕성 차원에 선택된 문항들은 지적능력(M=2.45, SD=.33)보다는 도덕성(M=7.15, SD=.92) 차원의 행동이라고 지각된 것들이었다, $F(1, 39)=1220.27$, $p<.001$. 지적능력 차원과 도덕성 차원의 행동기술문의 평가적 극단성의 정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능력과 도덕성 차원 모두에서 약간 부정적이고 약간 긍정적인 행동은 9점 척도의 중앙점인 5점으로부터 평균 약 ±1.5점 떨어지도록 만들었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은 중앙점으로부터 약 ±2.7점 떨어지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적능력과 도덕성 차원 모두에서 약간 부정적인 행동들의 평균은 3.53, 약간 긍정적인 행동들의 평균은 6.46,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들의 평균은 2.27, 그리고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들의 평균은 7.73 이었다. 결과적으로, 표 1과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응되는 도덕성 차원의 4개 범주의 행동과 지적능력 차원의 4개 범주의 바람직성 평균을 동일하게 만들었다. 다수집단 조건에서는 표 1과 2에 제시된 32개의 행동기술문이 자극으로 제시되었고, 소수집단 조건에서는 이 중에서 8개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되었다. 지적능력 차원과 도덕성 차원 모두에서 소수집단 조건에서 사용된 4개 범주별 행동기술문의 평균은 이에 대응하는 다수집단 조건의 범주별 행동기술문의 바람직성 평균과 거의 동일하였다.

절차

실험참여자는 정보량과 행동차원으로 이루어지는 4개의 조건 중 하나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참여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실험 안내문이 제시되었다.

> "본 실험에서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처리하는 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시할 시각적인 정보는 특정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묘사한 행동기술문들이고, 이는 컴퓨터 화면에 제시될 것입니다(예 :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의 운전사를 도와 차를 고쳤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입학한지 3년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서를 냈다). 본 실험에서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행동기술문은 어떤 두 집단 성원들의 행동을 기록한 것인데,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 그들은 단지 집단 A 또는 집단 B라고만 언급됩니다. 컴퓨터 화면에 제시될 집단 성원들의 행동은 각각의 집단 전체에서 무선적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이 행동기술문을 읽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컴퓨터 화면에서 자동으로 다른 행동기술문이 나타날 것입니다."

안내문을 읽고 난 후에, 실험참여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집단 A와 집단 B의 행동을 기술한 행동기술문을 제시받았다. 컴퓨터에는 9초 동안 집단성원의 이름, 집단소속,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기술문(예, 선우는, 집단 A의 성원인데, 강도를 격투 끝에 잡았다)이 화면 중앙에 제시되었다. 모든 집단성원의 이름은 남성이름으로 통일하였다. 예비조사에 따르면, 행동기술문을 읽기에 9초는 충분한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에서 집단 A는 극단적인 행동기술문으로 묘사되었고, 집단 B는 비극단적인 행동기술문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도덕성 조건에서는 집단 A는 도덕성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집단 B는 도덕적으로 약간 긍정적이거나 또는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지적능력 조건에서도 집단 A는 극단적으로 긍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집단 B는 약간 긍정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집단에 대한 정보의 양이 많았던 조건에서는 집단 A의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 8개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 8개, 그리고 집단 B의 약간 긍정적인 행동 8개와 약간 부정적인 행동 8개가 제시되었다. 반면, 집단에 대한 정보의 양이 적었던 조건에서는 집단 A의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 2개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 2개, 그리고 집단 B의 약간 긍정적인 행동 2개와 약간 부정적인 행동 2개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정보량이 많았던 조건에서는 총 32개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됐지만,

www.kci.go.kr

정보량이 적었던 조건에서는 총 8개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되었다. 행동기술문은 하나씩 무선화된 순서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행동기술문이 모두 제시되고 난 후에, 집단 A(극단적 집단)와 집단 B(비극단적 집단)에 대한 인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참여자들에게 (a) 각 집단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9점 척도(1=매우 싫다. 9=매우 좋다) 상에 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난 후 (b) 각 집단이 도덕적 차원에서 얼마나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c) 각 집단이 지적능력이 얼마나 좋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9점 척도(1=매우 나쁘다. 9=매우 좋다) 상에 평가하게 하였다. 집단의 전체적인 인상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시하였고, 도덕성과 지적능력 차원에서의 평가에 대한 질문은 제시순서를 역균형시켰다.

결 과

집단의 전체적 인상에 대한 평가

정보량, 행동차원, 그리고 집단 극단성에 따라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2(정보량 : 다, 소)×(행동차원 : 도덕성, 지적능력)×2(집단 극단성 : 극단적 집단, 비극단적 집단)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정보량과 행동차원은 피험자간 변인이고 집단 극단성은 피험자내 변인이다. 결과에 따르면, 행동차원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6)=43.86$, $p<.001$. 도덕성 차원의 행동기술문을 받았던 조건($M=4.05$)보다 지적능력 차원의 행동을 봤을 때($M=5.45$) 집단을 더 좋게 평가했다. 하지만 정보량과 집단 극단성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76)=.96$, $p=.35$; $F(1, 76)=.02$, $p=.88$.

행동차원과 집단 극단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6)=6.43$, $p<.05$. 이러한 결과 발생한 것은 도덕성 차원의 행동기술문이 주어졌던 조건에서는 극단적 집단($M=3.73$)이 비극단적 집단($M=4.38$)보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적능력 차원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되었던 조건에서는 극단적 집단($M = 5.70$)이 비극단적 집단($M=5.18$)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F(1, 39)=3.49$, $p=.07$; $F(1, 39)=2.22$, $p=.15$. 정보량과 평가대상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정보량과 행동차원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F(1, 76)=.06$, $p=.81$; $F(1, 76)=.26$, $p=.61$.

표 3. 정보량, 행동차원, 그리고 집단 극단성에 따른 집단의 전체적 인상에 대한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정보량 : 소		정보량 : 다	
	도덕성	지적능력	도덕성	지적능력
극단적 집단	4.00(1.49)	5.32(1.52)	3.45(1.67)	6.17(1.18)
비극단적 집단	4.00(1.30)	5.27(1.45)	4.75(1.55)	5.06(1.21)
차이점수	0.00	0.05	-1.30*	1.11*

주. 차이점수 = 극단적 집단 - 비극단적 집단
*$p<.05$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정보량, 행동차원, 그리고 집단 극단성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6)=5.96$, $p<.05$. 표 3에 제시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행동차원과 집단 극단성이 집단에 대한 인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어진 정보량에 따라 달라졌다. 정보량이 적었던 조건에서는 행동차원에 따라 극단적 집단과 비극단적 집단에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도덕성 차원의 행동기술문이 주어졌던 조건에서 극단적 집단($M=4.00$)과 비극단적 집단($M=4.00$)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F(1, 19)=.00$, $p=1.0$, 지적능력 차원의 행동기술문이 제시됐던 조건에서도 극단적 집단($M=5.32$)과 비극단적 집단($M=5.27$)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1, 21)=.01$, $p=.93$. 하지만 정보량이 많았던 조건에서는 행동차원에 따라 집단 극단성이 집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도덕성 차원에서는 극단적 집단($M=3.45$)이 비극단적 집단($M=4.75$)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F(1, 19)=6.28$, $p<.05$, 지적능력 차원에서 극단적인 집단($M=6.17$)은 비극단적인 집단($M=5.06$)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F(1, 17)=6.12$, $p<.05$. 즉, 도덕성 차원의 경우,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이 약간 긍정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보다 더 나쁜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도덕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하는 부정성 편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적능력 차원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www.kci.go.kr

한 집단이 약간 긍정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보다 더 좋은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지적능력 차원에서 긍정적인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하는 긍정성 편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적능력 차원에서는 긍정성 편파가 발생하고 도덕성 차원에서는 부정성 편파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편파는 집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졌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

정보량, 행동차원, 그리고 집단 극단성에 따라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2(정보량)×2(행동차원)×2(집단 극단성)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량과 행동차원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집단 극단성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행동차원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6)=46.10$, $p<.001$. 이는 도덕성 차원의 행동기술문을 받았던 조건($M=3.68$)에서 지적능력 차원의 행동기술문을 받았던 조건($M=5.24$)보다 실험참여자들이 평가 대상 집단을 도덕적으로 더 나쁜 집단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정보량과 집단 극단성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6)=2.63$, $p=.11$; $F(1, 76)=2.77$, $p=.10$.

행동차원과 집단 극단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6)=5.59$, $p<.05$.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도덕성 차원의 정보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극단적 집단($M=3.23$)이 비극단적 집단($M=4.13$)보다 도덕적으로 더 부정적인 집단으로 지각되었지만, $F(1, 39)=6.21$, $p<.05$, 지적능력 차원의 정보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극단적 집단($M=5.30$)과 비극단적 집단($M=5.15$)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F(1, 39)=.31$, $p=.58$. 즉, 도덕성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이 약간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보다 도덕적으로 더 부정적인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도덕성 차원에서 부정적인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하는 부정성 편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적능력 차원의 정보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극단적인 성원으로 구성된 집단과 비극단적인 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대한 도덕성 평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적능력 차원의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평가가 도덕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긍정성 편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외의 정보량과 집단 극단성의 상호작용, 정보량과 행동차원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보량, 행동차원, 그리고 집단 극단성의 삼원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76)=1.43$, $p=.24$; $F(1, 76)=.11$, $p=.74$; $F(1, 76)=2.22$, $p=.14$.

표 4. 행동차원과 집단 극단성에 따른 집단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행동차원	
	도덕성	지적능력
극단적 집단	3.23(1.72)	5.30(1.20)
비극단적 집단	4.13(1.65)	5.15(1.11)
차이점수	-0.90*	0.15

주. 차이점수 = 극단적 집단 - 비극단적 집단
*$p<.05$

집단의 지적능력에 대한 평가

정보량, 행동차원, 그리고 집단 극단성이 집단의 지적능력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전 분석에서처럼, 2(정보량)×2(행동차원)×2(집단 극단성)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보량과 행동차원이 피험자간 변인으로, 집단 극단성은 피험자내 변인으로 이루어졌다. 결과에 따르면, 집단 극단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76)=22.54$, $p<.001$. 실험참여자들은 극단적인 집단($M=6.04$)을 비극단적인 집단($M=4.96$)보다 지적으로 더 우수한 집단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차원의 주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6)=6.81$, $p<.05$. 이는 지적능력 차원의 행동기술문을 받았던 조건($M=5.80$)에서 도덕성 차원의 행동기술문을 받았던 조건($M=5.21$)보다 평가 대상 집단이 지적으로 더 우수한 집단이라고 지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량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76)=1.28$, $p=.26$.

행동차원과 집단 극단성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76)=6.97$, $p<.05$.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성 차원의 정보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극단적 집단($M=5.45$)과 비극단적 집단($M=4.98$)의 지적능력 차

www.kci.go.kr

표 5. 행동차원과 집단 극단성에 따른 집단의 지적능력에 대한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행동차원	
	도덕성	지적능력
극단적 집단	5.45(1.43)	6.63(1.39)
비극단적 집단	4.98(1.17)	4.95(1.65)
차이점수	0.47	1.68***

주. 차이점수 = 극단적 집단 - 비극단적 집단
***p<.001

원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F(1, 39)=2.98, p=.09, 지적능력 차원의 정보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극단적 집단(M=6.63)이 비극단적 집단(M=4.95)보다 지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F(1, 39)=22.24, p<.001. 즉, 지적능력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이 약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한 집단보다 지적으로 더 우수한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지적능력 차원에서 긍정적인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하는 긍정성 편파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도덕성 차원의 정보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극단적인 성원으로 구성된 집단과 비극단적인 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성 차원의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평가가 지적능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성 편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의 정보량과 집단 극단성 간의 상호작용, 정보량과 행동차원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보량, 행동차원, 그리고 집단 극단성의 삼원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76)=1.40, p=.24; F(1, 76)=.02, p=.89; F(1, 76)=.49, p=.49.

결론 및 논의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서도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성 편파와 함께 긍정성 편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도덕성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행동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서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부정성 편파가 나타났고, 지적능력 차원에서는 긍정적 정보가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긍정성 편파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편파는 집단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많았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 대한 인상판단을 다루었던 이전 연구들에서 매우 적은 양의 정보(예, 두 개의 긍정적인 행동과 두 개의 부정적인 행동)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발생되었다(예, Wojciszke, Brycz, & Borkenau, 1993)는 사실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과 집단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서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발생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개인은 통합된 하나의 실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수의 정보만으로도 구체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그 결과 긍정성 편파나 부정성 편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은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한 집단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 우리는 개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McConnell, Sherman, & Hamilton, 1997). 따라서 집단 인상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는 개인 인상형성 과정보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종속측정 질문의 구체성에 따라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발생하는 조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즉,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행동차원과 집단 극단성이 집단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집단에 대한 정보의 양에 의해 조절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는 집단 구성원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했을 때 발생했다. 하지만 각 집단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정보양의 조절 기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에 대해 도덕성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만든 경우에는, 정보량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도덕성 차원에서 부정성 편파가 발생했다. 또한 집단을 지적능력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한 경우에는, 역시 정보량과는 무관하게, 지적능력 차원에서 긍정성 편파가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판단과제의 애매성의 정도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즉,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것은 집단을 도덕성 차원이나 지적능력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판단을 내리

www.kci.go.kr

기에 더 모호하고 애매한 과제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차원이나 지적능력 차원 중 하나에만 주의를 두지 말고 집단의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의 전반적 인상형성 과제의 모호함과 복잡성 때문에 판단자는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히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정보량이 집단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상형성 과제에서 질문의 내용, 특히 질문의 구체성에 따라 실험참여자의 반응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참고, Schwarz, 1996).

집단을 도덕성 차원 또는 지적능력 차원에서 평가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특정한 행동 차원의 정보를 토대로 형성된 부정성 또는 긍정성 편파가 자극으로 제시되지 않은 차원으로까지 일반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도덕성 차원의 정보를 토대로 집단의 도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부정성 편파가 발생했고, 지적능력 차원의 정보를 토대로 집단의 지적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긍정성 편파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적능력 차원의 정보를 주고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을 때는, 전반적 인상형성 과정에서는 발견되었던, 지적능력 차원에서의 긍정성 편파가 집단에 대한 도덕성 평가에까지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마찬가지로 도덕성 차원의 정보를 주고 집단의 지적능력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을 때는, 전반적 인상형성 과정에서는 발견되었던, 도덕성 차원에서의 부정성 편파가 집단의 지적능력에 대한 평가에까지 일반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참여자들이 실험에 충분히 주의를 집중하였고, 그 결과 자극과 평가 차원이 다를 경우에 이에 차별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실세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상대 후보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부정적 선거운동(negative campaign)이 펼쳐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Ansolabehere와 Iyengar(1995)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실제로는 부정적인 정치 광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선거운동이 지속되는 주요한 이유는 부정적인 정치 광고가, 유권자들에게 선호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 때문이다(Jamieson 1992; Weaver-Larscy & Tinkham, 1999). 그런데 선거에서의 투표행동은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정당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 받는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에서의 승리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당과 같은 집단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성 편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성 차원에서는 아무리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이 있더라도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이 있다면 그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은 부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단의 크기가 커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도 많고 동시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구성원도 많은 경우에 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보다 부정성 편파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세계에서 벌어지는 부정적 선거운동이 대부분 상대 정당의 도덕적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의 지적 무능력을 공격해서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도덕성 차원의 비리를 들추면 상대의 인상은 바로 부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정적 선거운동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집단 인상형성 과정에서 부정성 편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적능력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우수한 행동을 한 구성원이 있다면, 극단적으로 열등한 수행을 한 구성원이 있더라도 집단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은 긍정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도덕성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적능력 차원에서도 이러한 긍정성 편파의 가능성은 집단의 크기가 큰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세계에서 긍정적 선거운동(positive campaign)을 선거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정당의 지적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우수한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면, 도덕적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인 구성원의 모습에 초점을 맞출 때보다, 대중에게 자기 정당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더 쉽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www.kci.go.kr

본 연구의 정보량이 많았던 조건에서, 집단 A와 B는 각각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조건에서 도덕성 차원에서는 부정성 편파가 일어났고 지적능력 차원에서는 긍정성 편파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 집단의 성원이 최소한 16명 이상이면,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이 어떤 행동차원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집단 전체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들의 당원이 최소한 16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는 도덕성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저지른 당원과 지적능력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인 당원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큰 선행을 한 당원이 정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정도보다는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짓을 저지른 당원이 지지도를 끌어내리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지적능력 차원에서 보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크게 실패한 당원이 지지도를 하락시키는 정도보다 극단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당원이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더 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도덕적으로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서 일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당원의 수가 많을수록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집단에 대한 인상에 미치는 영향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함께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최종선택을 결정한다. 즉,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대한 인상과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상이 모두 그(녀)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정성 편파와 긍정성 편파가 현실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 집단에 속한 특정 개인의 특성을 동시에 조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이후의 연구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과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인상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성 편파와 부정성 편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것이 특정 개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또는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Anderson, N. H. (1965). Averaging versus adding as a stimulus-combination rule in impression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0,* 394-400.

Anderson, N. H. (1968). A simple model for information integration. In R. P. Abelson, E. Aronson, W. J. McGuire, T. M. Necomb, & P. H. Tannenbaum(Eds.), *Theories of cognitive consistency : A source book* (pp.731-743). Chicago : Rand Mcnally.

Anderson, N. H. (1974). Cognitive algebra. In L. Berkov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7, pp.1-101). New York : Academic Press.

Anderson, N. H. (1981). *Foundations of information integration theory.* New York : Academic Press.

Ansolabehere, S., & Iyengar, S. (1995). *Going negative : How attack Ads shrink and polarize electorate.* New York : Free Press.

Birnbaum, M. H. (1972). Morality judgements : Tests of an averaging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93,* 35-42.

Birnbaum, M. H. (1973). Morality judgements : Tests of an averaging model with differential weigh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99,* 395-399.

Birnbaum, M. H. (1974). The nonadditivity of person impres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2,* 543-561.

Carlston, D. E. (1980a). Events, inference, and impression formation. In R. Hastie, T. M. Ostrom, E. B. Ebbesen, R. S. Wyer, D. L. Hamilton, & D. E. Carlston(Eds.), *Social cognition : The cognitive basis for social perception*(pp.89-119). Hillsdale, NJ : Erlbaum.

Carlston, D. E. (1980b). The recall and use of traits and events in social inference proc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303-329.

Fiske, S. T. (1980). Attention and Weight in person perception : The impact of negative and extrem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889-906.

www.kci.go.kr

Hamilton, D. L., & Huffman, L. J. (1971). Generality of impression formation process for evaluative and nonevaluative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200-207.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 Wiley.

Jamieson, K. H. (1992). *Dirty politics : Deception, distraction, democrac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McConnell, A. R., Sherman, S. J., & Hamilton, D. L. (1997). Target entitativity : Implicatons for information processing about individual and group targe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750-762.

Reeder, G. D. (1985). Implicit relations between dispositions and behaviors : Effect on dispositional attribution. In J. Harvey & G. Weary(Eds.), *Attribution :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pp.87-116). Orando, FL : Academic press.

Schwarz, N. (1996). Judgment in a social context : Biases, shortcomings, and the logic of conversation.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26, pp.123-162). San Diego : Academic Press.

Skowronski, J. J., & Carlston, D. E. (1987). Social judgment and memory : The role of cue diagnocity in negativity, positivity, and extremity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89-699.

Skowronski, J. J., & Carlston, D. E. (1989). Negativity and extremity biases in impression formation : A review of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5,* 131-142.

Van der Plight, M., & Eiser, D. (1980). Negative and descriptive extremity in impression 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10,* 415-419.

Weaver-Larscy, R. A., & Tinkham, S. F. (1999). The sleeper effect and 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 *Journal of Advertising, 28*, 13-30.

Wojciszke, B., Brycz, H., & Borkenau, P. (1993). Effect of information content and evaluative extremity on positivity and negativity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327-335.

Wyer, R. S. (1973). Category ratings for “subjective expected values” : Implications for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0,* 446-467.

Wyer, R. S. (1974). *Cognitive organization and change :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Potomac, MD : Erlbaum.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8, Vol. 22, No. 4, 1~14

Effects of Negativity and Positivity Biases on the Impression Formation of Groups: The Role of the Amount of Information

Woo Young Chun

Hally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s how negativity and positivity biases affect the impression formation of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morality domain negative behaviors are given more weight in information integration, thus yielding negativity biases. In the intellectual competence domain, however, positive behaviors are given more weight in information integration, thus yielding positivity biases. The effects of negativity and positivity biases in the impression formation of groups occurred only when the amount of information given was large enough. The roles of negativity and positivity biases in real life such as political campaign are discussed.

Keywords: **Negativity bias; Positivity bias; Impression formation of groups; Amount of information**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7월 16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8년 10월 30일
게재 확정일 : 2008년 11월 9일

www.kci.go.kr